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

아직 여름이 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요즘,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전법교화의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의원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일명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은 긴장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수십 년만의 큰 가뭄은 모두의 마음마저 말라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마음을 드리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헌신하는 의원스님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스님 여러분!

금번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원로회의의 의견을 담아 종헌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다룰 종헌 개정안에 대하여 원로회의에서 권고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길 바랍니다.

총무원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일부개정안’은 종단의 중점 정책과제인 ‘중앙교구 활성화’ 과제와 관련하여 총무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찰주지 임명권한의 일부를 본사로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영사찰이 소속 교구본사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전법 활동과 사회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잘 살펴봐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원이 제출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올해를 끝으로 기한이 종료되는 ‘교육특별분담금’을 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특별분담금’은 지난 1996년 ‘관람료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처음 신설되었고, 2008년 ‘관람료관리법’의 대체입법으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기한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승가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한을 정해왔던 ‘교육특별분담금’을 상설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내용이오니, 이 또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

우리 종단은 지난 5월 16일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대회와 관련하여 세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광화문 광장에 삼십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하여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더불어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건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종단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스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종교에 거는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거는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언제나처럼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감내하며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